

무너짐의 아름다움

Adam B. Dooley
(Preaching Magazine, 2024 년 봄호)

내 설교 중 최고는 아니었다.

6 주간 자리를 비운 뒤, 아들의 항암치료 유도기가 끝나고 우리는 멤피스 론드 맥도날드 하우스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완화 반응에 들어갔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128 주간 연속 치료를 받아야 했다. 우리는 지치고, 감정적으로 고갈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목회 사역을 재개하며 나는 옅기 원문 강해 설교를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성경책을 펴고 설교를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감정이 북받쳐 왔다. 내가 이야기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몰입감 속에서 읽어 내려가는 각 절이 이론적이거나 무미건조하지 않았다.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나눌 때마다 마음 깊은 울림이 전해졌고, 해석을 풀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듯했다.

그러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당혹스러웠다. 그 취약함은 전에 느껴 본 적 없는 노출감을 안겨주었고 솔직히 불편했다. 어떻게든 평정을 찾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흐트러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교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 내 연약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아마도 처음 깨달은 진리였으니,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꺾으신다는 사실이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엄습했다. 성령께서 분명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기쁨, 나의 고난이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된다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능력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가 감히 선포했던 진리들을 스스로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기쁨이었다.

오해하지 말라. 나는 성경의 교리를 전혀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아들의 암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성경을 '설명'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동일한 진리를 '체험'할 때 삶은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짐의 아름다움이다.

세상의 고통은 종종 우리가 믿노라 고백하는 영원한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다(약 1:2-4). 예기치 못한 환난이 우리의 지식에 경험의 깊이를 더해 주기도 한다(시 147:3). 특히 목회자는 지식만 쌓이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절제되지 않은 삶은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내면과 어긋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의도치 않게 '전문적 성자(聖者)'라는 페르소나를 장착해 성도들의 기대를 충족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위선은 목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 해친다.

환난은 종종 더 큰 진정성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다. 눈물은 반갑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신보다 구주를 더 영화롭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시 6:8). 순종의 목적지는 환난의 길 끝에 있다(시 119:67).

그러므로 나는 이제 눈물을 숨기지 않는다. 너도 마찬가지다. 오늘의 마음 아픔이 언젠가 아픈 이들을 위로할 베개가 될 수 있다(고후 1:3-4).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전략적으로 고난을 사용하셔서, 받은 위로를 다른 이에게 전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 함께 겪는 경험이야말로 협력의 힘을 낳는다.

하나님의 설교자는 이 짐의 무게나 그 속에서 누리는 복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롬 13:8), 짐을 나누며(갈 6:2), 친절을 베풀고(엡 4:32), 위로하며(살전 4:18), 기도하고(약 5:16), 가르치고 권면하며(골 3:16), 서로 섬기라(벧전 4:10)고 명령하신다.

또한 모든 환난은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믿음을 드러낼 기회다(빌 1:12-14).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야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최상의 순간이 찾아온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필요하거나 퇴행적 구원책으로 평가절하하기에, 고난 가운데 견고히 서는 성도의 모습을 목격할 때야말로 마음이 열린다. 지친 성도의 지속적 믿음을 본 비신자는 강력한 영감과 도전을 받는다.

더 나아가, 고난은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해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의 문을 여는 통로다(벧전 1:6-9). 사역의 함정 중 하나는 성공과 인정에 눈이 멀어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식는 것이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이 최종 보상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소망하도록 일깨워 준다. 바울이 잃은 것 모두를 기꺼이 내어준 이유가 이것이었다(빌 3:7-10).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배우거나 친밀히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실재하시고 함께하심을 믿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으로 충분함을 신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이 진리를 지적으로 이해하지만, 그 현실을 체험하기 전까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환난은 예수와 동참하는 고통(빌 3:10)을 통해 부활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피상적 삶에서 벗어나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한다.

그러니 용기를 내자, 설교자여.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 속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시든, 네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든, 하나님은 그 눈물 하나하나를 닦아주시고(계 21:4), 병에 담아 보관하신다(시 56:8).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환난은 순간적이다. 이사야는 "내 거룩한 산 위에는 다시 상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리니"(사 11:9)라 예언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우리의 환난에 대한 최후의 심판관은 주님이시다. 깊은 골짜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장차 올 영광 앞에 시든 고난을 작게 만든다.

떨어뜨린 눈물과 지고 가는 마음 아픔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분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롬 8:28) 이루신다. 가장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히 13:5-6). 인생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에 너무 짧을지라도, 영원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의 의문은 이 땅에서의 고난일지라도, 결국 하늘에서의 찬양으로 이어진다. 눈물은 우리 희망을 아직 가 보지 못한 세계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어쩌면 그날 설교가 그리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 아담 둘리, 테네시주 잭슨 엔글우드 침례교회 담임목사